

升降의 韓醫學的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的 升降運動에 대하여

문수영* · 서중훈** · 이은미*** · 박은정****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論

古代醫家들은 “天人相應”의 理論에 立脚하여 人體內 氣의 升降까지도 自然現象을 解釋하는 것과 똑같은 方法으로 觀察하였다.

升降이란 上下升降이라고도 하는데 上下升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世上萬物을 生化하는 根源이 되지만 人體도 역시 이러한 升降으로써 生命活動의 基本形式을 갖추고 있다. 陰陽五行學說도 실제로는 升降의 運動을 表現하는 것으로 陰陽浮沈이나 陽降陰升·水升火降 및 木浮金沈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¹⁾, 人體의 臟腑, 經絡, 氣血, 津液 등의 機能活動은 모두 氣機의 升降에 의하여 平衡狀態를 維持한다.²⁾

그러므로, 人體에는 끊임없는 升降運動을 통해 氣血津液陰陽이 正常的인 作用을 하게되어 生命活動이 維持된다. 十二正經과 奇經八脈을 비롯한 人體 經絡이 五臟

六腑와 上下內外를 連結하여 衛氣營血을 全身으로 散布시킴으로인해 人體에 生理, 病理作用을 하게된다.

人體經絡의 주된 作用이 升降이며 東洋哲學의 概念인 陰陽五行이 人體내에서 寒熱·虛實·表裏·陰陽의 八綱과 五臟六腑에 具體적으로 作用한다.

陰陽五行 學說이 醫學에있어서 人體를 理解하는 方法論으로 定着됨에 따라서 升降概念은 自然히 人體의 生理·病理 變化를 認識하고 說明해내는 學說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升降의 概念이 《黃帝內經》이후에 本格的인 理論으로 體系를 갖추면서 다양한 醫家들의 見解가 追加되어졌고 現在에까지 이어지면서 韓方 基礎 理論의 뿌리인 陰陽五行의 運用에 核心的인 內容이 되었다.

人體는 不斷한 升降運動을 통하여 氣血津液運行이 正常的인 作用을 發揮하게 되는데 氣機가 升降失調하면 五臟六腑와 上下內외의 協助 및 統一機能에 影響을 미쳐 肝氣鬱結·肝氣橫逆·胃氣上逆·脾氣下陷·肺失宣降·腎不納氣·心腎不交 등의 病變이 나타난다.³⁾ 하지만, 現在에 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1) 金完熙, 崔達永 :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5, p.78

2) 張珍玉 : 病因病機學, 一中社, pp.63~69

3) 寇華勝 : 中醫升降學, 江西科技出版社,

르러 升降運動의 理論에 관련된 內容들은 많으나 이에 대하여 明確하게 定理된 文獻은 많지 않은 實情이다.

이에 著者は 升降理論을 明確히 밝혀 韓醫學的 理論의 實際的 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升降의 概念과 自然界, 人體內의 升降運動에 대한 歷代 醫家說을 綜合적으로 比較檢討하는 바입니다. 또한 時間과 空間은 分離되어 存在하는 것이 아니나 著者は 升降의 概念을 綿密히 理解하고자 時間과 空間을 區分하여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調査, 考察하고자 한다.

II. 本論

1. 升降의 文字的 概念

‘升’字는 說文解字 註에서 “古經에서 傳하기를 登을 흔히 升이라 作하는 것은 古文에서 假借한 것이다. 禮經註에 이르되 布八十縷를 升으로 한다 하니 升字는 마땅히 登이 되어야하며 오늘날의 禮는 모두 升으로 하고 있으니 世俗의 잘못이 이미 오래 되었다. 살피건데 오늘날 世俗에서 쓰이는바 또 陞이라 하고 있다.”⁴⁾라고 하여 古來로 ‘升’자는 度量衡의 단위로서 ‘登’, ‘陞’자와 混用되어 쓰여왔다.

詩經 小雅 天保에서는 “如月之恒 如日之升”⁵⁾이라 하여 升이 ‘上升’, ‘登上’, ‘提高’의 意味로 쓰였다.

周易에서는 序卦傳에서 “垢는 만났으니 물건이 서로 만난 후에 모이느니라. 故로 萃로서 받고 萃는 모이는 것이니 모여서 이르는 것을 升이라 이르니라. 故로

升으로써 받고 올라가서 말지 아니하면 반드시 困함이라……”⁶⁾고 하였고 重水坎에서 “하늘의 험한 것은 가히 오르지 못함이요.”라고 하였으며 六十四卦중의 하나로 地風升이 있어 “象에 가로되 땅 가운데 나무가 있는 것이 升이니 君子가 써하여 德을 順하여 小를 쌓아 크게 하나니라.”⁷⁾하여 內卦인 巽木이 坤土아래 점차 자라는 形象이라 升의 象이라 하였다.

‘升’자는 升, 登, 陞과 同義의 字로 ‘되’, ‘織物의 여든 올새(布八十縷)’, ‘오른다’, ‘올린다’, ‘바친다’, ‘이루어진다’, ‘융성하다’, ‘익는다’, ‘升卦’ 등의 意味로 쓰이고 있다.⁸⁾

‘降’자는 《說文解字註》에서 “降은 下이다. 이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니 측간에서 떨어지는 사이를 말함이라. 釋詁에 이르기를 降은 落이다. 옛날에는 흔히 降을 假借하여 笏이라하니 父부의 笏이다…… 穀梁傳에 이르기를 降은 下와 같다하니 모두 笏의 假借字이다.”⁹⁾라고 하였으며 《辭海》에서는 降이 ‘落下’ ‘降下’¹⁰⁾의 意味라 하였으며 論語에서는 “不降其志 不辱其身”¹¹⁾이라 하여 ‘굽힌다’ ‘낮춘다’는 意味로 쓰였다.

降字는 ‘降伏하다’, ‘降伏받는다’, ‘떨어진다’, ‘가라앉는다’, ‘내린다’ 등의 意味로 通用되고 있다.¹²⁾

2. 升降運動의 特性

升降은 體內 陰陽五行의 運動形式이므로 陰陽五行의 特性이 升降에도 反影된

pp.70~80

4) 許慎 : 說文解字註, p.719

5) 詩經 p.156

6) 周易 序卦傳下 pp.598~599

7) 周易 象傳 p.373

8) 李相殷 監修 : 漢韓大字典, p.198

9) 許慎 : 前揭書, p.732

10) 辭海編纂委員會 : 辭海, p.996

11) 論語 卷十八微子 p.383

12) 李相殷 監修 : 前揭書, p.1304

다.

寇華勝¹³⁾은 升降運動의 特性을 5가지로 分類하여 說明하고 있는데 寇의 분류에 따라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升降은 相互 對立性을 보인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은 天으로 上升하고 濁陰은 地로 下降하며……清陽은 上竅로 出하고 濁陰은 下竅로 出하며……陰味는 下竅로 出하고 陽氣는 上竅로 出한다.”¹⁴⁾

하여 清濁과 氣味の 陰陽에 따라 運動하는 方向이 相反됨을 밝혔고, 黃元御는 《黃元御醫書十種》¹⁵⁾에서 “金木은 水火의 升降으로 緣由하는 바이다. 木이 直한 즉 腎氣가 木을 따라 左升하고, 金이 從한 즉 心火가 金을 따라 右降한다.” 고 하여 臟腑의 升降이 左右로 對立됨을 말했다.

2) 升降은 相互 依賴的이며 統一性을 보인다.

《素問·六微旨大論》¹⁶⁾에서 “高下相召하고 升降相因하여 變化가 일어난다.” 라 하였으며 王琦의 素問今釋¹⁷⁾에서는 “升으로 말미암아 降하니 降은 곧 天氣의 作用이며 降으로 말미암아 升하니 升은 곧 地氣의 作用이다.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交流하고 地氣가 上升하여 天에 騰交한다.” 라고 하였으며, 張介賓의 類經¹⁸⁾에서는 “天氣는 地氣의 上升이 없으면 능히 下降할 수 없고 地氣는 天氣의 下降이 없으면 능히 上升할 수 없다.” 고 하여

陽氣의 下降에는 반드시 陰氣의 下降이 包含되므로 陽氣는 陰氣로 化生하는 過程중에 下降하는 것이며 陰氣의 上升은 陽氣의 上升에 依支하므로 陰氣가 陽氣로 化生하는 過程중에 上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升降은 相互 依賴的이며 統一的인 特性을 內包하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3) 升降은 相互 轉化性을 보인다.

‘升’과 ‘降’은 일정한 條件 하에서 相對的으로 轉化하는 性質이 있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上升이 다하면 下降하니 下降한 것을 天이라 하며 下降이 다하면 上升하니 上升한 것을 地라 한다. 天氣는 下降하여 氣가 地로 下流하며 地氣는 上升하여 氣가 天으로 上騰한다.”¹⁹⁾하여 上升과 下降에 있어 運動의 極이 되는 條件에 이르게 되면 正反對의 運動을 보인다고 說明하고 있다. 經脈의 循環도 이와 같아서 陰經은 上行하고 陽經은 下行하는데 陰經이 上行을 다하면 陽經과 連結되어 下行하고 陽經은 다시 陰經에 接續됨을 보인다.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이러한 經脈의 升降에 대한 病變에 대하여 “陽病은 上升하여 極에 이르러 下行하고 陰病은 下行하였다가 極에 이르러 上升한다.”²⁰⁾ 고 하여 經脈의 病變을 說明하고 있으니 邪氣가 陽經을 侵犯하면 먼저 上行하여 極點에 이르러 다시 下降하고 陰經의 病邪는 먼저 下行하여 極點에 이르러 다시 上升함을 밝혔다.²¹⁾

4) 升降은 相互 制約性을 보인다.

13) 寇華勝 編著 : 前揭書, pp.1~3

14) 洪元植 編著 : 精校黃帝內經, p.20

15) 黃元御 編著 : 黃元御醫書十種(下卷), p.30

16) 洪元植 編著 : 前揭書, p.135

17) 王琦 : 素問今釋, p.333

18) 張介賓 : 類經, p.553

19) 洪元植 編著 : 前揭書, p.135

20) 上揭書, p.62

21) 王琦 : 前揭書, p.151

黃元御는 五行升降의 制約性을 說明하여 “木性은 發散이니 收斂하되 金氣로써 한 즉 木이 過散되지 않을 것이요. 火性은 升炎하니 降服시키되 水氣로써 한 즉 火가 過炎하지 않을 것이요. 土性은 濡濕하니 疏土시키되 木氣로써 한 즉 土가 過濕하지 않을 것이요. 金性은 收斂하니 溫升시키되 火氣로써 한 즉 金이 過收하지 않을 것이요. 水性은 降潤하니 滲泄시키되 土氣로써 한 즉 水가 過潤하지 않을 것이니 모두 氣化自然의 妙이다.” 22)라고 하여 五行 相克의 關係를 升降概念을 이용하여 說明함으로써 相互 制約的 側面을 밝혔다.

火性은 炎上하나 水가 下行하므로 上愚의 憂慮가 없게 되며 水性은 潤下하나 火가 蒸騰하여 上升하므로 涸渴의 憂慮가 없게 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이는 升降의 相互 制約性에 의해 維持되는 現象이다. 23)

5) 升降은 相互 關聯性을 보여 준다.

上述한 特性들을 綜合하여 보면 升降은 複雜한 相互 關聯性을 나타낸다.

寇華勝은 《中醫升降學》에서 “升降 중에는 다시 升降이 있어 五臟은 精氣를 藏하여 上升을 主管하며 六腑는 轉化를 하여 下降을 主管한다. 五臟중에 心肺는 上焦에 位置하여 下降을 主管하고 肝腎은 下焦에 位置하여 上升을 遂行한다. 三焦 內部에서도 각각 升과 降이 있다……肺는 本臟의 內에 升과 降이 있어 津液代謝를 촉진하며 肺와 肝의 相關에 있어서는 肺는 下降쪽을 擔當하므로 肝은 左升하고

肺는 右降하며 氣血의 平衡을 維持한다.” 라고 하여 升降의 內부에 다시 升降運動이 복잡한 關聯性을 통해 人體가 維持됨을 說明하고 있다.

3. 《黃帝內經》의 升降概念

1) 升降出入은 宇宙萬物의 運動에 있어서 基本形式임을 提示하였다.

自然界와 人間과의 關聯性에 대한 觀察의 結果인 天人相應思想은 黃帝內經의 基本思想이다.

黃帝內經에서는 自然界의 物質運動 變化는 天地陰陽地氣의 升降에 의하여 遂行된다고 認識하였으며 人體도 이와 相應한다고 認識하였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出入이 廢한 즉 神氣가 火滅하며 升降이 멈춘 즉 氣立이 孤危된다. 故로 出入이 아니면 生·長·壯·老·已가 없으며 升降이 없으면 生·長·收·藏이 없다. 그러므로 升降出入에는 氣가 없을 수 없다. 故로 氣는 生化之字이니 氣가 흩어지면 分散되어 生化가 멈춘다. 故로 升降과 出入은 항상 存在한다. 變化에는 小大가 있으며 時間에는 根源이 있다.” 24)라고 하여 升降出入을 통해 物質의 生成과 消滅이 이루어진다고 認識하였다.

2) 人體내에서의 清陽과 濁陰의 升降出入을 提示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은 上竅로 出하고 濁陰은 下竅로 出하며 清陽은 腠理로 發하고 濁陰은 五臟을 主管하며 清陽은 四肢를 實하게 하고 濁陰은 六腑로 歸한다.” 25)라고 하여 清陽과 濁

22) 黃元御 : 前揭書, p.26

23) 寇華勝 : 前揭書, p.3

24) 洪元植 編著 : 精校黃帝內經, p.135

25) 上揭書, p.18

陰의 升降을 提示하였다. 이 內容은 精微로운 營養物質(淸陽)을 上七竅로 運輸시켜 耳目口鼻가 정상적인 機能을 維持하도록 하고 大소변(濁陰)은 二陰으로 排出되도록 하며, 水穀에서 化生된 衛氣(淸陽)은 精微중 濃厚(濁陰)한 것은 五臟으로 供給되어 五臟의 活動에 쓰이도록 하며 腎에 根源을 두고 脾胃의 水穀精氣의 끊임없는 滋養을 받는 陽氣(淸陽)는 四肢로 이동하여 手足을 溫暖하게 하며 動作이 이루어 지게하고 水穀과 排泄物(濁陰)은 消化와 排泄이 主機能인 六腑로 移動한다고 說明된다.

3) 升降運動의 特性을 提示하였다.

黃帝內經의 升降에 관한 論述은 升降의 特性을 提示하고 있는데 升降은 體內 陰陽五行의 運動形式이므로 陰陽五行의 特性이 升降에도 反影된다. 寇華勝²⁶⁾은 升降運動의 特性을 5가지로 分類하여 說明하고 있는데 寇華勝의 分類에 따라 列舉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升降은 相互 對立性을 보인다.
- (2) 升降은 相互 依賴的이며 統一性을 보인다.
- (3) 升降은 相互 轉化性을 보인다.
- (4) 升降은 相互 制約性을 보인다.
- (5) 升降은 相互 關聯性을 보여 준다.

4) 左升右降說을 提示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天地는 萬物의 上下이고, 陰陽은 血氣의 男女이고, 左右는 陰陽의 道路이다.”²⁷⁾라고 하였고, 《素問·方盛衰論》에서 “陽從左 陰從右”²⁸⁾라고 하여 陽氣는 左로 上升

하고 陰氣는 右로 上升한다고 하였고, 《素問·五運行大論》에서 “上者右行 下者左行”²⁹⁾이라 하여 六氣의 流行을 左右로 나누어 說明하였다.

5) 臟腑중심의 升降運動을 提示하였다.

《素問·刺禁論》에서 “肝生于左 肺藏于右”³⁰⁾라고 하고 王琦³¹⁾은 註釋에서 “肝의 生發之氣는 左側으로 上升하며 肺의 淸肅之氣는 右側으로 下降한다.”라고 記述하였다. 《素問·經脈別論》에서는 食과 飲을 區分하여 穀에서 消化 吸收된 精微物質과 水에서 供給된 水精이 臟腑의 升降을 따라 流行함을 보여준다. 그 內容은 “食物이 胃中으로 들어가면 그 精微物質이 肝으로 散布되어 全身의 筋肉을 滋養한다. 濃厚한 精微物質은 心으로 上注되어 血脈으로 輸送되고 百脈의 精氣가 經脈으로 流入되어 肺로 들어간다. 폐에서 百脈이 朝會하고 肺의 宣發作用으로 皮毛에 散布되어 皮毛와 經脈의 精氣가 合한 후 胸中으로 되돌아간다.”³²⁾라고 하였고 “水液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流溢하여 脾로 上輸되고 脾氣가 水精을 散布하여 肺로 上注하며 肺의 肅降作用으로 水道를 通調하고 膀胱으로 下輸된다. 이것은 水精을 全身 皮毛로 散布시키는 것이며 五臟의 經脈으로 流注시키는 것이다.”³³⁾라고 하여 水穀의 精微物質이 五臟 각각의 升降作用에 따라 表인 皮毛까지 放散되기도 하고 膀胱으로 下輸되기도 하는 樣相을 보여준다. 內經에서는 人體내

29) 上揭書, p.130

30) 上揭書, p.102

31) 王琦: 前揭書, p.239

32) 洪元植: 前揭書, p.48

33) 上揭書, p.48

26) 寇華勝: 前揭書, pp.1~3

27) 洪元植 編著: 前揭書, p.19

28) 上揭書, p.198

의 物質代謝가 臟腑의 升降을 中心으로 이루어짐을 提示하였으며 脾胃에서 우선 精微物質을 生産하여 升降運動을 통하여 타 臟腑로 전달됨을 보이고 있어 脾胃가 升降에 있어 중심적인 役割을 수행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6) 藥物의 氣味升降을 提示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味는 下竅로 出하고 陽氣는 上竅로 出한다. 味가 厚한 것은 陰이 되며 薄한 것은 陰의 陽이고, 氣가 厚한 것은 陽이며 薄한 것은 陽의 陰이 된다. 味가 厚한 것은 泄하고 薄한 즉 通하며, 氣가 薄한 즉 發泄하고 厚한 즉 發熱한다……辛甘이 發散하는 陽이 되고 酸苦이 涌泄하는 것은 陰이 된다.” 34)고 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鹹味が 涌泄하는 것은 陰이 되고 淡味が 滲泄하는 것은 陽이 된다.” 35)하였고, 《素問·臟氣法時論》에서는 “辛味로 發散하고 酸味로 收斂하며 甘味로 緩和하고 苦味로 堅固하게 하고 鹹味로 柔軟하게 한다.” 36)하여 藥物의 氣味에 따른 升降과 作用을 言及하여 藥物의 升降浮沈學說에 理論적 根據를 提示하였다.

7) 飧泄, 臌脹, 亂氣, 薄厥 등의 升降失調시의 病理現象을 提示하였다.

內經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升降失調의 病變은 다음과 같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寒氣는 濁을 生하고 熱氣는 清을 生하니 清氣가 下部에 있는 즉 飧泄하고, 濁氣가 上

部에 있는 즉 臌脹이 된다.” 37)하여 升降失調하여 清氣와 濁氣가 位置가 逆轉되면 飧泄, 臌脹이 생긴다고 하였다.

《素問·陰陽清濁論》에서는 “穀에서 받은 것은 濁하고 空氣에서 받은 것은 清하다. 清한 것은 陰臟으로 들어가고 濁한 것은 陽臟로 들어가며 水穀중의 精微物質은 咽으로 上出하고 空氣중의 濁氣는 下行하는데 清濁이 相干된 것을 이름하여 亂氣라 한다.” 38)라고 하여 ‘亂氣’는 清濁의 升降失調가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가 大怒하면 上逆하여 形氣가 絶하고 上部에 血이 鬱積되어 薄厥이 發生한다.” 39)고 하였는데 張景岳은 類經에서 註釋하기를 “大怒한 즉 經脈이 不通한다. 故로 血逆妄行하면 上焦에 鬱積된 즉 氣血이 모두 亂하니 薄厥이 된다.” 40)라고 하였다.

《素問·解精微論》에서는 “무릇 사람이 厥逆한 즉 陽氣는 上에 偏在되고 陰氣는 下에 偏在된다. 陽氣가 上에 偏在된 즉 化熱之氣가 上部에 獨盛하고 陰氣가 下에 偏在되면 足寒하고 足이 寒한 즉 脹이 된다.” 41)하여 陰陽이 逆亂하여 陰升陽降이 되지 않을 시의 病理現象을 說明하였다.

그 외 《素問·舉痛論》에서 “怒則氣逆” “恐則精却” 42)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病變을 說明 하였고 《素問·方盛衰論》에서는 “氣多少로 逆한 것은 厥이 된다. …… 氣가 上升하여 下降하지 않으면

34) 上揭書, p.18

35) 上揭書, p.188

36) 上揭書, pp.49~50

37) 上揭書, p.18

38) 上揭書, p.278

39) 上揭書, p.14

40) 張景岳 : 前揭書, p.270

41) 洪元植 : 前揭書, pp.200~201

42) 上揭書, p.79

頭痛 癩疾이 된다.”⁴³⁾ , 《靈樞·衛氣》에서는 “下虛則厥”⁴⁴⁾ , 《靈樞·五難》에서는 “清濁이 相干하여 氣가 臂經에 亂하면 즉 四厥이 되며 亂于頭部한 즉 厥逆한 즉 頭重眩伏이 된다.”⁴⁵⁾ 라고 하는 등 여러 편에서言及되고 있다.

8) 升降失調시의 治法을 提示하였다.

陰陽의 偏盛偏衰의 平衡으로 調節하는 것이 內經의 治療原則이라 할 수 있는데 《素問·至眞要大論》에서 “高者는 抑之하고 下者는 舉之라”하여 上冲하는 病證은 降逆시키며 下陷되는 病證은 升舉시킨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升降失調시의 治療大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其高者는 因而越之하고 其下者는 因而竭之하고 中滿者는 瀉之于內라.”하여 病變 部位인 中, 高, 下의 治法을 論하였다.

吳崑은 註釋에서 “高는 胸之上이며 越之는 吐를 시키는 것이다.……下는 臍之下이며 瀉 小便을 通利시키고 大便을 通하게 한다.……腹中滿은 堅滿을 消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官能篇》에서 用針의 理論을 說明하면서 “만드시 形氣의 所在와 左右上下 陰陽表裏 血氣의 多少와 經脈運行의 逆順과 出入之合을 알고 治療하여 過誤가 없게 한다.……”

“上氣不足은 推而 揚之하고 下氣不足은 積而從之라”고 하였고 《靈樞·終始篇》에서는 遠導取穴法을 說明하여 “病在上者

는 下取之하고 病在下者는 高取之라”하였으니 升降失調시의 病變에 대하여 氣의 逆上은 降逆하여 鎮靜시키되 刺鍼은 下를 取하여 下降을 誘導하고 氣의 下陷을 升舉시키되 上을 取하여 上向을 誘導하는 것이라 思料된다.

이와 같이 여러 편에서 升舉失調시의 治法이 言及되고 있다.

4. 物理學的, 生物學的 自然現象의 比喩를 통한 升降

《素問·陰陽應象大論》⁴⁶⁾에서는 雲雨의 升降을 比喩하여 人體내의 升降을 說明하고 있는데 이것은 自然現象의 理致를 把握하여 人間에 適用함으로써 체내의 여러 現象을 이해하는 天人相應 思想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 가지 比喩를 통하여 升降運動을 說明하고 있는데 周學海⁴⁷⁾는 “陽이 升한 즉 우물은 寒하고 陰이 升한 즉 暖하다. 우물에 물건을 던지거나 낙엽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오락가락하면서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升하는 氣運이 障礙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우물에 낙엽을 떨어뜨려서 空氣의 抵抗을 받는 것을 比喩하여 說明하였고, “빈 관에 물을 가득 채워서 上을 막고 들고 있으면 水가 泄下하지 않으니 升氣가 없으면 能히 降할 수 없는 것이요, 빈병의 小口에 갑자기 물을 넣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은 氣가 나오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管이나 瓶을 이용하여 說明하였다.

또, “積聚, 癰疽, 麻木, 疼痛之痹는 經絡중에 있는 것이다. 다만 양끝에만 氣가 있고 中間은 膈塞된 것이다. 그 本은 傷

43) 上揭書, p.198

44) 上揭書, p.299

45) 上揭書, p.270

46) 上揭書, p.18

47) 周學海 : 讀醫隨筆, pp.16~26

하지 않았으니 疏通시킨 즉 回復된다. 비유하건데 管의 中間에 물이 結滯된 것이니 그 結滯를 제거하면 氣가 스스로 行할 것이다.”라고 하여 積聚, 癰疽, 麻木, 痺證 등의 病證이 升降失調로 인한 氣滯現象으로 把握하여 그 治療에 있어서 疏通을 強調하였다.

石壽棠⁴⁸⁾은 “陰陽升降은 가히 볼 수 없으니 釜甑(부증)을 빌어 說明하면 솥 안의 水穀은 水이고 솥 밑의 불은 火이다. 蒸氣는 陽氣가 되며 蒸氣중의 물은 陰氣가 된다. 그리하여 반드시 솥 안의 水穀이 충만하고 솥 밑의 불이 熏蒸하면 솥 위의 덮개가 統束하여야 하는데, 蒸氣 중의 물은 旺盛하고 따뜻하게 되어 上蒸하고 下布한다. 蒸氣 중의 물은 陰氣가 上升하는 것이며 蒸氣가 變化하여 물이 되는 것은 陽氣가 下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蒸氣의 循環을 들어 陰升降을 說明하였다.

李正來⁴⁹⁾는 “人體의 循環作用은 遠心력과 求心力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에 의하여 滲透壓과 體溫이 調節되는 것이다. 마치 물을 물통 같은 곳에 넣고 원형을 그리며 돌리면 그 물이 쏟아지지 않지만 그 作用이 약하여 원형을 이루며 회전하지 못하면 自然히 물이 쏟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회전을 氣의 運行이라 할 수 있고 이 氣의 運行은 滲透壓과 合流하고 있으니 이 調節은 그 자체 내에서 上中下 三焦의 火氣가 作用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물통을 회전시켜서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에 比喻하였으니 回轉方向을 左右·上下·側方으로 回轉시

켜도 역시 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現代 生物學的 觀點과의 相關性에 대한 言及으로 尹吉榮⁵⁰⁾은 “代謝에 있어 分解變化의 過程인 異化作用은 에너지를 生産하는 ‘陽化氣’요, 合成變化의 過程인 同化作用은 化學的 에너지를 蓄積하여 體性分化하는 것이니 ‘陰性形’이다. 代謝過程에서 얻은 生命에너지는 內部的 生理作用이나 外部 活動을 위해 사용되고 最後에는 열로 방출되며 最終產物은 尿로 排出되거나 氣가 되어 呼吸으로 排出된다. 이로 인하여 소모된 生體物質을 補充하기위해 營養을 消化吸收하고 糟粕을 排泄하며 산소를 吸收한다. 이러한 作業을 新陳代謝 또는 總代謝 또는 出納代謝 라고 하는데, 이것을 ‘陰陽出入’이라 하고 代謝에서 얻은 에너지가 最終產物로서 熱이 되어 放出되면 新生한 熱이 代替하여 體溫을 維持하니 이것을 熱代謝라고 하며 이를 陰陽升降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5. 時空의 升降

內經에서는 時間과 空間의 升降에 대하여 《素問·六微旨大論》⁵¹⁾을 들어 “出入이 廢한 즉 神氣가 火滅하며 升降이 멈춘 즉 氣立이 孤危된다. 故로 出入이 아니면 生·長·壯·老·已가 없으며 升降이 없으면 生長收藏이 없다. 그러므로 升降出入은 氣에 없을 수 없다. 氣는 生化之宇이니 氣가 흩어지면 分散되어 生化가 멈춘다. 故로 升降과 出入은 항상 存在한다. 變化에는 小大가 있으며 時間에는 根源이 있다.”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類經》⁵²⁾에서 ‘升降出入 無器不有’중 升降出入의

48) 石壽棠 : 醫原, p.10

49) 李正來 : 東洋醫藥原理, 은누리出版社, 1988, p.33

50) 尹吉榮 :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成輔社, 1983, p.26

51) 洪元植 : 前揭書, p.135

52) 張介賓 : 前揭書, p.554

‘器’에 대한 註釋을 “凡物之成形者 皆曰氣”라 하여 氣는 物質의 存在임을 밝혔다.

이상의 言及으로 物質的 存在에 있어서의 存在與否는 升降運動의 有無가 關鍵이 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尹吉榮⁵³⁾은 《素問·六微旨大論》의 “不生不化 靜之期”⁵⁴⁾에 대한 說明에서 “宇宙에 있어서는 運動이 일어나기 전이나 靜止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現在의 우주는 靜之期로서 陰陽出入升降을 하므로 現象世界가 存在하는 것이요, 人에 있어서는 死로 인하여 陰陽出入升降이 休止하는 것이 靜之期이니 生命現象이 消滅하여 生化가 休止한다.……宇宙의 寒熱의 消長과 四時의 變化와 萬物의 生化極變은 宇宙의 陰陽出入升降이요, 人의 攝取排泄과 體內的 生化極變과 寒熱이 변하는 人의 陰陽出入升降으로 宇宙도 出納代謝와 熱代謝를 하고 人도 出納代謝와 熱代謝를 한다.”라고 하여 宇宙의 變化와 人體의 變化가 相應하여 同一한 方式으로 進行됨을 밝혔다.

時間과 空間에 대하여 李正來⁵⁵⁾는 氣의 膨脹과 收縮을 言及하고 “氣의 動과 靜을 物體와 空間이라면 그 熱度와 冷却度는 物體와 時間의 合流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1) 時間적 概念의 升降

時間적 概念에 있어서의 升降은 四季에서의 升降, 四時에서의 升降·老少에서의 升降 등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四季에서의 升降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春三月은

發陣이라 하고, 夏三月은 蕃秀라 하고, 秋三月은 容平이라 하고, 冬三月은 閉藏이라 하고,…… 무릇 四時 陰陽자는 萬物의 根本이다.……故로 陰陽四時者는 萬物의 終始이며 死生의 根本이다.”⁵⁶⁾라고 하였으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에는 四時 五行으로써 四時는 生·長·收·藏하고 五行은 寒·暑·燥·濕·風을 生한다. 人體에도 五臟이 있어 五氣를 化하고, 怒·喜·憂·悲·恐을 生한다.”⁵⁷⁾라고 하여 春夏秋冬의 四季 循環을 反復하며 각 季節에 따른 機能인 春에 生, 夏에 長, 秋에 收, 冬에 藏의 機能이 發顯되도록 하며, 五行은 木은 風, 火는 暑, 土는 濕, 金은 燥, 水는 寒의 五運을 循環시켜 萬物의 生死가 고리와 같이 끊어지지 않고 循環 함을 說明하였다. 人體에도 이에 對應하여 五臟이 있어 肝은 怒, 心은 喜, 脾는 憂, 肺는 悲, 腎은 恐의 五情이 생기게 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陰陽의 動靜에 대해 “陽의 動은 溫에서 시작하여 暑에 盛해지며 陰의 動은 清에서 시작하여 寒에서 盛해지므로 春夏秋冬이 각기 그 나뉘는 差가 있다.”⁵⁸⁾라고 하였다.

四季에 따른 人體에서의 氣의 升降變化에 대한 具體的인 言及으로 《素問·診要經終論》에서 “正月과 二月에는 天氣가 퍼지기 始作하여 人體의 經脈之氣는 肝에 있게 되며, 三月과 四月에는 天氣가 퍼지고 地氣도 升發이 旺盛해져 人體의 經脈之氣는 脾에 있게 되며, 五月과 六月에는 天氣가 旺盛하고 地氣도 높아져 人體의 經脈之氣는 頭에 있게 되며, 七月과 八月

53) 尹吉榮 : 前揭書, pp.15~16

54) 洪元植 : 前揭書, p.135

55) 李正來 : 前揭書, p.48

56) 洪元植 : 前揭書, p.13

57) 上揭書, p.18

58) 上揭書, p.187

에는 陰氣가 생겨 肅殺이 되기 시작하고 人體의 經脈之氣는 肺에 있게 되며, 九月과 十月에는 喘의 陰氣가 강해져서 얼음과 같고 地氣는 閉藏되기 시작하며 人體의 經脈地氣는 心에 있게 되며, 十一月과 十二月에는 얼음이 伏藏하고 地氣는 閉合되어 人氣는 腎에 있게 된다.”⁵⁹⁾ 라고 하였고, 《靈樞·四時刺逆從論》에서는 “春節에는 人體의 氣가 經脈에 모이며 夏節에는 人體의 氣가 孫絡에 모이며 長夏에는 人體의 氣가 肌肉에 모이며 秋節에는 皮膚에 모이고 冬節에는 骨髓중에 모인다.……春은 天의 陽氣가 열리기 시작하고 地氣도 上升하기 시작하여 얼음이 녹고 언 것이 풀려 河水가 流通하므로 經脈도 流通하여 人體의 氣가 經脈에 있게 된다. 夏節에는 經脈의 流動이 旺盛하여 孫絡으로 넘쳐 들어가 皮膚가 充實해져 人體의 氣가 孫絡에 旺盛하게 된다. 長夏에는 經絡의 氣가 모두 旺盛하여 안으로 肌肉으로 들어가 潤澤하게 되어 人體의 氣가 肌肉에 旺盛하게 된다. 秋節에는 天氣가 收斂되기 시작하여 腠理가 따라서 閉塞되고 皮膚毛孔이 收斂緊縮되어 人體의 氣가 皮膚에 있게 된다. 冬節에는 萬物이 閉藏되어 人體의 血氣가 中心에 모이게 되고 안으로 骨髓에 藏蓄되며 五臟에 流通하게 되므로 骨髓에 人體의 氣가 있게 된다.”⁶⁰⁾라고 하여 四時에 따른 天地의 陰氣 陽氣의 升降變化가 人體내의 氣血의 運動에 영향을 주어 天人相應함을 보여 준다. 黃元御⁶¹⁾는 “陽이 半升한 즉 春이 되고, 全升한 즉 夏가 되며, 陰이 半降한 즉 秋가 되며, 全降한 즉 冬이 되며,

春生夏長은 木火之氣이므로 春溫夏熱하고 秋收冬藏은 金水之氣이므로 秋涼冬寒하다.”하여 陰陽의 半升, 升半降, 降의 段階的 區分으로 四季가 形成됨을 說明하였다.

(2) 四時에서의 升降

四季뿐만 아니라 一日의 晝夜에도 역시 變化가 存在하니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論》에서 “春에는 生하고 夏에는 長하며 秋에는 收하고 冬에는 藏하는 것은 氣의 常道이다. 人體도 역시 이에 응하여 一日을 四時에로 나누어 朝에는 春, 日中은 夏, 日入은 秋, 夜半은 冬에 해당한다.”⁶²⁾라고 하였으며 《素問·金匱真言論》에서는 “陰中에 陰이 있고 陽中에 陽이 있으니 平旦에서 日中까지를 天의 陽에서 陽中之陽이라 하고 日中에서 黃昏까지를 天의 陽에서 陽中之陰이라 한다. 合夜에서 鷄鳴까지를 天의 陰에서 陰中之陰이라 하고 鷄鳴에서 平旦까지를 天의 陰에서 陰中之陽이라 한다.”⁶³⁾라고 하였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는 낮에는 人體의 外部를 主管하며 새벽에는 陽氣가 생겨나고 正午가 되면 陽氣가 隆盛해 지며 해가 저물면 陽氣가 減少하면서 毛孔이 닫힌다. 그러므로 해가 지면 이슬 안개 등의 冷氣를 맞지 말 것이니 이 三時에 어긋나면 身體가 衰弱해진다.”⁶⁴⁾라고 하여 하루 중 太陽의 移動에 따른 陽氣의 消長에 依據하여 四時로 區分하였고 體內의 陽氣의 消長도 이에 相應함을 말하였다.

(3) 老少에서의 升降

老少에 있어서의 氣의 狀態에 대한 言

59) 上揭書, p.35

60) 上揭書, p.124

61) 黃元御 : 前揭書, p.26

62) 洪元植 : 前揭書, p.283

63) 上揭書, p.16

64) 上揭書, p.14

及으로 《素問·方盛衰論》에서 “雷公이 請하여 묻되 氣의 盛衰 多少에 있어 무엇을 逆이라 하며 무엇을 從이라 합니까? 黃帝가 답하기를 陽氣는 左를 從하여 升하는 것이 順이며 陰氣는 右를 從하여 降하는 것이 順이며 老人은 上을 從하는 것이 順이며 小人은 下를 從하는 것이 順이다. 春夏에 人體의 精氣가 陽에 旺盛하면 順이 되므로 生하고 만약 氣가 반대로 陰에 歸하면 時令과 反하니 逆이 되어 死한다.”⁶⁵⁾ 하였고 張景岳⁶⁶⁾은 “老人의 氣는 먼저 下에서 衰하는 이유로 上을 從하는 것이 順이 되고 小壯人의 氣는 먼저 下에서 盛하는 故로 下를 從하는 것이 順이 된다.”라고 하였다.

黃元御⁶⁷⁾는 五官開竅에 대한 說明에서 “五官과 七竅는 神氣의 門戶이다. 清陽이 上升한 즉 七竅가 空榮하고, 濁陰이 上逆한 즉 五官이 窒塞하게 된다. 清升과 濁降은 일정한 理致가 있는데 사람이 消長하면 清氣는 上升하고 濁氣는 下降함이 잘 이루어지므로 上은 虛하고 下는 實하나, 사람이 老衰하게 되면 清氣가 下陷하고 濁氣는 上逆하여 下는 虛하고 上은 實하게 된다. 七竅의 空榮은 그 上이 虛함에 있고 五官 窒塞은 그 上이 實함에 있다.”라고 하여 老少에 따라 升降 機轉이 달라짐을 말하고 있다. 人間이 始初 出生할 때에는 純陽에 가깝게 出發하여 年少할 때에는 清陽의 發散 上升과 濁陰의 下降 排泄이 순조롭게 充足한 元陽의 下部 底力에서 出發한 升發에 의해 相은 精微로운 에너지로 가득하여 清虛 하여서 下實而上虛한 體局을 이루나 時間이 지나서

年老하게 되면 下部의 元陽은 枯渴되어 清氣는 升發하지 못하고 循環力의 不足으로 濁陰이 순조롭게 下降 排泄치 못하여 上에 位置하게 되므로 결국 上實而下虛한 體局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內經에서 ‘老從上 少從下’ 라고 言及하여 老少에 따른 升降의 差異를 說明하였다.

2) 空間적 概念의 升降

(1) 天地間의 升降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天地者 萬物之上下也”⁶⁸⁾ 라고 하였고 《素問·玉命全形論》에서 “天覆地載하여 萬物番備한대 人보다 貴한 것이 없다. 人은 天地地氣로 生하고 四時之法으로 成한다.”⁶⁹⁾ 라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天地合氣하여 六節分而萬物化生矣”⁷⁰⁾ 라고 하여 天地간의 氣의 交流로 萬物이 化成됨을 說明하였다.

天地간의 運動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은 天이 되고 濁陰은 地가 되며 地氣가 上升하여 雲이 되고 天氣가 下降하여 雨이 된다. 雨은 地氣에서 出하며 雲은 天氣에서 出한다. 그러므로 清陽은 上竅로 出하며 濁陰은 下竅로 出한다.”⁷¹⁾ 라고 하여 雲雨의 升降에 比喻하여 清陽 濁陰의 升降을 說明하였으며,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氣의 升降은 天氣와 地氣가 交互하여 行한다.……上升이 다하면 下降하며 下降하는 것을 天氣라 한다. 下降이 다하면 上升하는데 上升하는 것을 地氣라 한다. 天氣는 下降하여 氣가 下流하며 地氣는 上升하여 氣가

65) 上揭書, p.198

66) 張景岳 : 前揭書, p.403

67) 黃元御 : 前揭書, p.29

68) 洪元植 : 前揭書, p.19

69) 上揭書, p.53

70) 上揭書, p.178

71) 上揭書, p.18

上騰한다. 故로 高下가 서로 相召하고 升降相因果하여 變化를 일으킨다.”⁷²⁾ 라고 하여 天氣와 地氣의 升降이 循環하면서 相互 轉化하는 것과 天이 地氣의 上升을, 地가 天氣의 下降을 誘導하여 相互 因果를 이루는 依存的인 特徵을 說明하였다.

(2) 四方에서의 升降

東西南北 四方에 대한 內容으로 《素問·五常政大論》에서 “天氣의 陰陽과 地理의 高低 모두 大少의 差異가 있다. 東南方은 陽氣에 속하며 陽氣의 運動은 上에서 下降하여 南方은 熱하고 西方은 溫하며, 西北方은 陰에 속하며 陰氣의 運動은 下에서 上行하므로 北方은 寒하고 西方은 涼하다. 이것으로서 地理에는 高低가 있고 氣候에는 溫涼의 差異가 있으니 地勢가 높으면 氣候가 寒하며 地勢가 낮으면 氣候가 溫熱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寒涼지역에는 脹病이 多發하고 溫熱地帶에는 瘡病이 多發하니 攻下法을 쓰면 瘡病이 그치고 發汗劑를 쓰면 瘡病이 낮게 된다. 이것은 地勢와 氣候의 太過 不及에 對應하는 人體 腠理의 開闔作用에 있어서 大少의 差異일 뿐이다.……地의 陰精이 相逢하는 寒涼한 地域 住民들은 腠理가 치밀하여 陽氣가 빠지는 일이 적으므로 長壽하게 되며 天의 陽精이 下降하는 溫暑의 지역주민들은 腠理가 거칠어서 陽氣가 빠지는 일이 많으므로 夭折한다.”⁷³⁾ 라고 하여 東西南北의 方位에 따른 氣候의 差異를 說明하였으며 住民의 環境에 따른 適應이 相異함을 보여준다.

그 외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은 西北이 不足하여 陽이 不足하여 陰이 되므로 사람의 右耳目이 左耳目보다

明瞭하지 못하고 地는 東南方이 不滿하여 陰이 不足하여 陽이 되므로 사람의 左手足이 右手足보다 강하지 않다.”⁷⁴⁾ ……東南方은 陽이므로 陽은 精氣가 위로 향하여 集中되어 上은 盛하고 下는 虛하므로 耳目은 聰明하되 手足은 不便하게 된다. 西北方은 陰이므로 陰은 그 精氣가 아래로 향하여 集中되어 夏는 盛하고 上은 虛하게 되므로 耳目은 聰明하지 못하나 手足은 편하게 된다. 그러므로 함께 邪氣가 侵犯되더라도 上에서는 左側이 심하니 이것은 天地의 陰陽이 平等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바이다.”⁷⁵⁾ 라고 하여 人身小天地의 觀點에서 地勢와 體內 精氣의 偏在로 인한 機能 發顯의 差異를 說明하였다.

李中梓⁷⁶⁾는 《醫宗必讀》에서 “仲景이 春夏에 당하면 진실로 辛熱에 執着하지 않았으며, 守眞이 江東에 당하면 결코 苦寒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며, 東垣이 火逆을 治療하면서 乘除를 固執하지 않았으며, 丹溪가 脾虛를 治療하면 마땅히 涼潤에 拘碍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陳修園⁷⁷⁾은 《陳修園醫書七十二鍾》에서 醫分南北論에 개한 言及으로 “西北은 風枯土燥하여 風寒邪로 인하여 病이 됨이 많고, 東南은 地肥水濕하여 濕熱이 傷人함이 惟獨 심하다.”라고 하여 空間적인 條件의 差異에 의하여 發生하는 疾病이 다르므로 治療 또한 이에 따라야 함을 強調하였다.

특히, 東垣의 경우 寒濕運中에 처했고 사람들이 戰亂으로 인한 饑饉에 심한 困難을 받았으므로 營養供給이 不良하여 전

74) 上揭書, p.20

75) 上揭書, p.145

76) 李中梓 : 醫宗必讀, pp.2~3

77) 陳修園 : 陳修園醫書七十二種, p.1866

72) 上揭書, p.135

73) 上揭書, p.145

반적인 沈滯機轉이 病이 되므로 補氣承制, 補中升陽의 治法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丹溪는 火燥運中에 처하였고 東南地方의 濕하며 더운 氣候에 居處하여 전반적인 亢進機轉이 病이 되므로 이에 下降을 誘導하는 滋陰降火의 治法을 主張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上下左右表裏의 升降 出入

上下表裏의 升降運動에 있어서 自然界의 升降에 따라 體內에서도 예외없이 相應하여 運行됨은 前述한 바와 같다. 升降의 字意에서 보듯이 上下의 概念이 충분히 內包되어 있지만 平面的인 의미보다는 立體的인 의미로서의 升降概念이 人體를 精밀하게 理解하는데 더 필요할 것이라 思料된다. 그리하여 左와 右, 表와 裏, 內와 外에 대한 內經의 言及은 다음과 같다.

左右에 있어서의 升降에 대하여 《素問·方盛衰論》에서는 “陽從左 陰從右”⁷⁸⁾라고 하여 陽氣는 左를 따라 上升하는 것이 順이며 陰氣는 右를 따라 下降하는 것이 順임을 밝히고 있다.

《素問·刺禁論》에서는 “肝生于左 肺藏于右”⁷⁹⁾라고 하였으며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上者 右行 下者 左行 左右周天 餘而復會”⁸⁰⁾라고 하여 左升右降을 밝혔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外는 陽이 되며 內는 陰이 된다.”⁸¹⁾라고 하여 表와 外는 陽에 속하고 內와 裏는 陰에 속하는 概念임을 밝혔고, 升降과 出入에 대하여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無不

出入 無不升降”⁸²⁾이라 하여 出入과 升降은 相互 不可分의 關係임을 밝혔다.

6. 五行의 升降

黃元御⁸³⁾는 陰陽의 生成과 變化에 대하여 “陰陽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에는 一氣가 混茫하였다. 氣에는 陰陽을 품고 있는 즉 清濁이 있으며 清한 즉 浮升하고 濁한 즉 沈降하니 自然의 本性이다. 升한 즉 陽이 되며 降한 즉 陰이 되어 陰陽이 위치가 다르게 되어 兩儀가 나누어 진다. 清濁의 사이를 中氣라 부르는데 中氣는 陰陽升降의 樞軸이니 이른바 土이다. 樞軸運動으로 清氣는 左旋하면서 升하여 火로 化하며 濁氣는 右轉하면서 降하여 水로 化하니 火로 化한 즉 熱하고 水로 化한 즉 寒하다. 木야호로 그 半만 升하는 것은 火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木이라 한다. 木의 氣運은 溫하며 升하되 다하지 아니하니 溫이 쌓여 熱을 이루어 火로 化하게 된다. 그 半만 降하는 것은 水를 이루지 못함이니 이름하여 金이라 한다. 金의 氣運은 涼하여 降하되 다하지 아니하니 涼이 쌓여 寒을 이루어 水로 化하게 된다. 水, 火, 金, 木을 四象이라 이름하는데 四象은 陰陽의 升降이며 陰陽은 中氣의 浮沈이다. 나누어 이름한 즉 四象이라 하고 合하여 이름한 즉 陰陽에 불과하며, 나누어 이름한 즉 陰陽이라 하며 合하여 말한 즉 中氣가 變化되는 바에 불과한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尙書·洪範篇》에서 “木曰曲直 火曰炎上 金曰從革 水曰潤下”⁸⁴⁾라고 하였고, 黃元御⁸⁵⁾는 이상의 내용에 五味를 附加

78) 洪元植 : 前揭書, p.198

79) 上揭書, p.102

80) 上揭書, p.130

81) 上揭書, p.21

82) 上揭書, p.135

83) 黃元御 : 前揭書, pp.25~26

84) 尙書 洪範編

85) 黃元御 : 前揭書, p.29

說明하여 “火性は 炎上하니 上炎한즉 苦를 作한다. 水性은 潤下하니 下潤한 즉 鹹을 作한다. 木性は 升發하니 直하면 升하나 曲한 즉 不升하므로 鬱而不升하여 酸을 作한다. 金性は 降斂하니 從한 즉 降하나 滯하여 不降하므로 辛을 作한다. 坎離가 交互하고 龍虎가 迴環한 즉 火는 下炎하여 不苦하며, 水는 上潤하여 不鹹하고, 木은 直升하여 不散하며, 金은 從降하여 不辛이라”하였다.

李正來⁸⁶⁾는 《東洋醫藥原理》에서 “氣의 變化는 時間과 空間에 의한 氣의 流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流行의 速度가 빠르면 自然히 마찰이 많아져서 더위므로 膨脹하면서 擴散하는 作用이 일어나는 것이요, 流行의 速度가 늦으면 마찰이 적어져서 自然히 冷却되고 收縮하며 凝固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膨脹 擴散되는 冷却의 機轉을 陽이라 하고, 收斂 凝固되는 冷却의 機轉을 陰이라 하는 것이다. 또 陽의 極을 火라 하고 陰의 極을 水라 하는 것이며, 더운 것과 찬 것이 交叉되며 變化될 때 두 氣運이 부딪히며 和하는 또 하나의 氣運이 있으니 이것을 中和의 氣運, 혹은 土라고 하는 것이다.…… 수에서 다시 火로 和하려는 作用을 木의 發散作用이라 하며, 膨脹 擴散되었다가 다시 그 極에서 서서히 下降하기 始作하는 火와 水의 中間作用을 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木火의 ‘發散上升’작용은 陽이요, 金水의 ‘收斂下降’작용을 陰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木의 作用을 發散, 火의 作用을 上升, 土의 作用을 中和, 金의 作用을 收斂, 水의 作用을 下降이라 言及하였다.

86) 李正來 : 前掲書, pp.21~22

7. 人體內的 升降運動

1) 脾胃의 升降概念

脾胃는 土臟으로 脾와 胃는 表裏關係로서 配合를 이루고 또한 中焦에 位置하여 臟腑의 中焦之氣를 主管한다. 自然界의 모든 사물은 運動變化하며 그 運動의 形成은 升降浮沈의 變化로서 表現이 되고 人體도 自然界에 相應하여 升降浮沈의 運動을 하는데, 心腎은 陰陽을 象徵하는 水火의 臟器이므로 水升火降을 이루는 心腎의 升降運動을 人體升降運動의 根本이라고 하고 肺氣는 肅降하고 肝氣는 升發하니 肺와 肝의 升降運動을 人體升降運動의 外輪이라 하고 脾는 主升하고 胃는 主降하여 交通上下하므로 脾胃를 人體升降運動의 中樞라 하는데, 脾胃升降은 人體氣化機能의 基本形式중 하나로서 人體가 新進代謝를 進行하여 生命活動을 維持하게 하는 基本過程의 하나이다.

脾主升清이란 脾의 機能이 上으로 升發하는 特性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 升⁸⁷⁾이란 升舉·轉輸를 말하는 것이고 人體 水穀精微를 心·肺로 上輸함⁸⁸⁾을 뜻하고 脾가 飲食物을 消化시킬 뿐만 아니라 飲食物 중의 營養物質과 水液을 吸收하고 輸布하는 概念이다. ⁸⁹⁾

脾가 水穀精微를 運化함에는 반드시 上으로 心·肺·頭目에 轉輸되어 心·肺를 通過하면서 氣血이 化生됨으로써 全身에 營養供給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葉天士가 《臨證指南醫案》에서 표현한 “脾宜升則健”이니, 脾氣가 健實하면 飲食物의

87) 陸極 : 脾胃命理論, 中醫古籍出版社, 1991, p.20

88) 金完熙 崔達永 : 前掲書, p.205

89) 金完熙 : 韓醫學原論, 成輔社, 1990, p.172

精微로운 부분과 津液을 肺로 轉輸하고 기타 臟腑에도 轉輸하며 全身各處에 營養을 供給할 수 있는 것이고 脾가 升清하게 되면 頭目이 氣血의 충분한 滋養을 받아 耳目이 聰明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脾氣가 升清하지 못하여 水穀精微를 轉輸하지 못하면 頭暈, 目眩, 耳鳴, 身疲 등이 나타난다.

또한 東洋醫學叢書⁹⁰⁾에서는 '脾主升清'은 胃主下降과 함께 五臟六腑의 陰陽升降에 대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擔當하여 人體 內臟의 相對인 恒常성에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특히 脾主升降은 腹腔 內臟 位置에 중요한 作用을 하여 만약 脾氣의 不能升舉가 심해지면 內臟下垂, 脫肛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胃는 脾의 腑로서 陽土에 속하며 脾主升清과 相反된 作用 즉 降濁作用을 가지는데 瀉而不藏하고 實而不滿하여 通降下行으로써 順이 된다.

《素問·五臟別論》⁹¹⁾에서는 “水穀入胃則胃實而腸虛 食下則腸實而胃虛”라고 하고 또 《靈樞·平人節穀篇》에서는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更虛更滿 故氣得上下五臟安定”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胃·腸의 虛實이 交代로 나타나 飲食物의 消化, 吸收가 進行되며 瀉而不藏을 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며, 升하지 않고 降하여 飲食物이 消化器官내에서 運送되는 즉, 胃의 通降下行하는 生理特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胃主降은 실제로는 胃와 腸을 包括하여 胃腸이 飲食物을 아래로 轉送하여 더욱 세밀한 消化

를 하게하는 機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胃氣는 通降을 順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며 脾가 清陽之氣를 心·肺로 上輸함에 대하여 濁陰之精을 肝腎으로 下歸하여 藏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濁陰은 두가지 意味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飲食消化物의 찌꺼기인 糟粕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清陽地氣와 對備되는 濁陰之精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通降作用은 지속적인 飲食物의 受納을 前提條件으로 하는 까닭에 胃의 通降作用이 喪失되면 食慾에 影響을 끼치게 되어 厭食·納呆 등의 症狀이 나타나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濁氣在上則生臌脹”이라 하여 濁氣가 人體의 上部에 停滯되면 飲食物도 下行하지 않고 胃中에 머무르는 까닭에 口臭, 脘腹脹滿 혹은 疼痛, 便秘 등의 ‘食滯胃脘’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며 또한 胃氣失降하여 胃氣가 上逆하게 되면 惡心, 嘔吐, 噯氣, 酸腐 등의 ‘胃失下降’의 症狀이 나타난다.

이상의 “脾主升清 胃主降濁”의 運動形式은 脾胃의 機能을 구체적으로 表現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水穀의 受納, 腐熟, 運化, 分布의 過程을 완성시킴에는 脾氣는 升을 順으로 하는 脾主升清이 作用하니 脾가 上升하게 되는 것은 清氣 즉 水穀精微이고 水穀精微가 上으로 肺에 도달하면 宗氣로 하여금 水穀精氣를 輸布케 하여 全身에 營養을 供給하게 되고 胃氣는 降이 和가 되니 胃主降濁은 飲食物의 受納과 腐熟을 擔當하여 下로 腸에 이르게 하니 즉 “胃實而腸虛 腸實而胃虛”의 胃腸虛實의 交代的 生理狀態를 이루게 하니 胃가 濁氣를 下降하게 하는 것이다.

脾胃의 升降運動은 人體機能활동의 基本形式으로서 脾와 胃는 一升一降함으로

90) 東洋醫學叢書 : 國際醫學學生會, 1990, p.35

91) 洪元植 : 前揭書, p.42

써 서로의 前提條件으로 하면서 相互協調하여 飲食物의 消化, 吸收過程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脾氣가 不升하면 胃氣 역시 不降하게 되고 胃氣가 不降하게 되면 반드시 脾氣의 上升에도 影響을 미치게 되어 食慾不振, 脘腹胞脹, 惡心, 噯氣, 消化不良, 腹瀉, 舌苔厚膩 등의 症狀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氣在下 則生飧泄 濁氣在上 則生臌脹”이라 말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李東垣은 《東垣十種醫書》에서 春氣上升 夏氣升浮 秋氣下降 冬氣沈藏 등의 自然界 모든 사물은 運動變化하며 그 運動의 形成은 升降浮沈의 變化로서 表現되는데 人體는 이러한 變化에 상응하여 肝氣는 條達하고 心氣는 藩滋하며 肺氣는 清肅하고 腎氣는 密藏하는데 이러한 升降浮沈의 生理運動은 반드시 脾胃를 中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만약 四時變化에 順應하지 않으면 脾胃가 損傷되어 上升下降에 異常을 초래하게 되어 疾病이 發生한다고 認識하여 脾胃의 升降機能을 臟腑, 經絡의 生化之源으로 看做하였다. 즉 脾胃는 升降의 中樞로 太陰脾土는 上升運行을 主管하여 清陽의 氣를 心肺에 上注하여 溫煦케 하고 陽明胃土는 下降, 受納을 主管하여 濁陰의 氣를 肝腎에 下達하여 潤澤하게 함으로써 人體의 生理作用을 正常的으로 運行시킨다. 따라서 脾胃의 作用이 순조로 우면 升降機轉이 잘 이루어지고 升降機轉이 調和되면 心腎이 안정되므로 脾胃가 元氣升發의 根本이 된다고 한 것이다. 즉 脾胃는 中焦에 位置하여 五臟氣機升降의 中樞가 되며 五臟之間에서는 協助統一을 이루며 升降運動이 이루어지니 脾胃의 升降은 五臟六腑升降의 造成部分이 되고 人體가 新進代謝를 進行하여 生命活動을 유

지하게 하는 基本過程인 것이다.

2) 心腎의 升降概念

心和 腎의 關係는 心腎相交의 關係로 表現되어 있는데, 心은 上焦에 居하면서 그 性質은 火·陽에 속하고 腎은 下焦에 居하면서 그 性質은 水·陰에 속하므로 心火는 반드시 腎으로 下降하여 腎陽을 도우며 腎陰을 따듯하게 해줌으로써 腎水가 不寒하게 하고 腎水는 心으로 上升하여 心陰을 도우며 心陽을 濡養함으로써 心火가 不亢하게 하니 이러한 關係를 가리켜 心腎相交라고 한다.

그러므로, 心火가 不足해지면 腎陽을 도와주지 못함으로 腎水가 不化하게 되어 水氣凌心의 證候가 나타나고 腎水가 不足해지면 心陰을 도와주지 못함으로써 心火가 獨盛하게 되고 陰虛火旺의 證候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心腎의 升降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人體내 升降不調의

狀態를 心腎不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機能의 衰弱에 의하여서 虛의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理論의 體系는 陰陽水火 升降과의 關係에 의하여 일어난다.⁹²⁾

寒熱病象의 根源도 역시 心火와 腎水의 關係에 있으며, 心腎은 升降의 根本으로서 脾胃를 包含한 기타 臟腑에도 影響을 미친다.⁹³⁾

朱丹溪는 《格致餘論》⁹⁴⁾에서 人間의 生命은 心火와 腎水의 相互간 升降에 의한 것이라 하였으며 後學들은 이를 土臺로 心腎相交의 理論을 발전시켰다. 張仲

92) 具本泓, 李京燮 : 心系內科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1981, p.9

93) 文濬典, 安圭錫 : 東醫病理學, 古文社, p.319

94) 朱丹溪 : 格致餘論(東垣十種醫書中), 大成出版社, 1983, p.19

景은 《傷寒論》에서 “少陰之爲病 脈微細但欲寐也”, “少陰病得之二三日以上 心中煩不得臥”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水火가 偏盛한 例이고, 李挺은 醫學入門에서 性情에 의해 心腎이 不交됨을 說明하고 收心養性이라고 하였으며, 虞搏은 寒熱病象의 根源은 心火와 腎水의 關係에 있다고 하였으며, 張景岳은《景岳全書》와 《類經》에서 心腎不交의 原因은 腎水不足에 있다고 하였으며, 李中梓는 《醫宗必讀》에서 “水火不交者 死之象”이라 하여 心腎不交의 重要性을 말하였고, 陳士澤은 《辨證錄》에서 “心過于熱하거나 腎過于寒하여 心腎不交하게 되며, 腎不交于心則 日不能寐하고 心不交于腎則 夜不能寐하며 心腎兩不交則 日夜不能寐한다.”라고 하였다.

心腎不交의 證候는 腎陰虛하면 腰膝痠軟, 眩暈, 耳鳴, 夢遺, 潮熱, 盜汗 등의 證狀이 나타나고, 腎陽虛하면 四肢不溫, 腰部冷痛 등의 證狀이 나타나고, 心腎兩虛하면 心悸, 浮腫 등이 나타나고, 心腎陰虛하면 心煩, 不眠, 心悸, 健忘 등의 證狀이 나타남을 알수 있다.

8. 人體내 升降運動과 氣化作用

‘氣化’의 定義는 人體 臟腑器官이 體內物質에 대하여 進行하는 生成 轉化 및 加工 改造 活動이며 人體의 물질과 에너지의 代謝過程이다. 化는 變이며, 變化 轉화와 化生の 뜻을 가진다.⁹⁵⁾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天食以五氣 地食人以五味”⁹⁶⁾ 이라 하여 天의 五氣와 地의 五味가 人體를 구성하는 基本物質의 根源이며 氣化의 物質의 基礎임을 밝혔다. 飲食 水穀은 臟腑機能의 作用하에서

運化 吸收 排泄되어지고 氣·血·精·津液 등의 精微物質은 臟腑 機能의 作用下에서 化生 轉化하고 人體는 生長壯老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人體의 氣化 過程이다.⁹⁷⁾

上述한 내용에서 氣化는 人體가 生命維持를 위한 에너지의 別稱이라 할 수 있다.

氣化의 言及은 最初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은 州都之官이니 津液을 貯藏하며 氣化한 즉 능히 出한다.”⁹⁸⁾ 라고 하여 水液代謝의 過程을 말한 것이나 上述한 바와 같이 현재 氣化의 概念은 擴大整理되어 天地에서 淵源한 氣가 人體에서는 五臟과 各 器官의 組織을 만들고 채우며 生命維持를 위한 끊임없는 에너지 代謝의 過程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人體내에서의 에너지의 變化運動은 ‘氣化’라고 표현되며 이 變化의 運動形式은 升降 運動이므로 升降과 氣化에 대한 具體的인 理解를 위하여 氣化를 廣義와 狹義로 區分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廣義의 氣化

李正來⁹⁹⁾는 宇宙 變化의 原理에 대하여 “宇宙의 變化는 하나의 母體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하나의 母體를 ‘太極’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太極에 의한 運行과 變化는 ‘하나의 氣(에너지)’의 作用이며 이 氣의 作用은 항상 어떠한 原理에 입각한 整然한 秩序를 內包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整然한 秩序’를 ‘理’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秩序와 作用을 理와 氣라고 하였다.

《靈樞·決氣》에서는 “人有精, 氣, 津,

95) 文潸典 : 前揭書, p.110

96) 洪元植 編著 : 前揭書, p.26

97) 文潸典 : 前揭書, p.111

98) 洪元植 編著 : 前揭書, p.24

99) 李正來 : 前揭書, p.21

液, 血, 脈이니 余意以爲一氣耳라.”¹⁰⁰⁾라고 하여 天地에서 來源된 에너지가 變化의 秩序와 作用을 거쳐 다양한 名稱으로 說明되나 그 實體는 ‘一氣’임을 밝혔다.

文濬典¹⁰¹⁾은 氣機와 氣化의 概念을 說明하며 “氣機는 人體臟腑와 組織機關이 가지는 機能活動을 가리키며 全人體의 生理機能 活動이다. 예를 들면 心의 行血, 肺의 呼吸, …… 腠理의 開閉 및 目的 視, 耳의 聽, 鼻의 臭, 掌의 握, 足의 步 등등이 모두 氣機의 範圍에 속한다. 氣化는 주로 臟腑器官의 더욱 복잡하고 微細한 化生機能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心이 血을 만드는 것, …… 氣血津液營衛精髓와 形味와 形氣의 化生과 轉化 및 人體의 生長發育 등이다.

氣機라는 概念은 謝觀이 編纂한 《中國醫學大辭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近代에 들어 新造된 概念으로 推測되는 바 氣機와 氣化의 概念을 統一한 包括적 概念으로 定義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狹義의 氣化

廣義의 氣化가 人體가 生命을 維持하기 위한 機轉이 됨은 上述한 바와 같으며 이를 陰機轉, 陽機轉으로 區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周易에서는 “一陰一陽을 謂之道”¹⁰²⁾라고 하여 動靜을 말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者는 天地之道야”, “天地者는 萬物之上下야요 濁陰爲地라 陰靜陽躁하고 陽生陰藏하고 陽殺陰藏하니 陽化氣 陰成形이라.”¹⁰³⁾라고 하였다.

陰陽의 相關關係에 대한 言及으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在內하니 陽之守也요 陽在外하니 陰之使也라.”¹⁰⁴⁾하여 轉化 互根의 關係임을 밝혔다.

李正來¹⁰⁵⁾는 陰陽의 成立에 대하여 “太極이 처음 動하는 狀態에서 輕淸한 氣運은 自然 浮升하므로 陽이라 한 것이고, 靜하는 狀態에서 重濁한 氣運은 自然 沈降함으로 陰이라 한 것이니 이렇게 陰과 陽의 위치가 스스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兩儀라고 한다.” 하였다.

尹吉榮¹⁰⁶⁾은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 ‘陽化氣 陰成形’을 說明하며 “代謝過程중에 陽化氣가 일어나고 陰成形이 일어나는데, 陽化氣를 일으키는 세력은 ‘陽勢力’이라 하고 陰成形을 일으키는 세력은 ‘陰勢力’이라 한다. 陽化氣는 生體에 에너지 즉 氣를 일으키는 것이요, 陰成形은 生體物質 즉 血을 形成하는 것이다. 陽化氣에는 氣化는 물론이요 熱化·同化가 일어나고, 形化에는 生體物質의 形成과 寒化, 靜化가 일어난다.” 라고 하였다.

III. 考察

東醫學에서는 人體를 小宇宙로 認識하고 自然界에서 나타나는 現象을 氣의 運動變化의 產物로 생각하고 있으며, 天人相應의 理論에 입각하여 人體내 氣의 升降도 自然現象을 解釋하는 것과 같은 方法으로 觀察하였다.

升降運動에 대한 歷代醫家 學說을 살펴 보면 《黃帝內經》중에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宇宙萬物의 運動에 있어서의

100) 洪元植 編著 : 前揭書, p.266

101) 文濬典 : 前揭書, p.110

102) 周易 : 繫辭傳,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259

103) 洪元植 : 前揭書, pp.18~19

104) 上揭書, p.19

105) 李正來 : 前揭書, p.47

106) 尹吉榮 : 前揭書, p.28

基本形式이 升降出入을 提示하였고,《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清陽과 濁陰이 人體내의 에너지 代謝와 相關됨을 언급하였다.

升降의 概念과 生理 및 四時陰陽에 관해서는 升降은 人身에 있어 生命活動의 根源으로 提示하였고, 升降의 意味는 人體 氣血의 升降뿐만 아니라 四時陰陽의 升降까지도 包括하는 뜻으로 폭 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升降은 自然界와 人體의 氣化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며 陰陽水火氣血의 升降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升字와 降字는 相反되는 意味로 降字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이동하면서 豐盛해진다는 意味이며 降字는 위에서 밑으로 移動하면서 氣勢가 꺾이면서 安定된다는 意味임을 알 수 있다.

臟腑간의 升降關係에 있어서는 肺의 宣發과 肅降, 肝의 升發과 疏泄, 脾의 升清과 胃의 降濁, 心火의 下降과 腎水의 上升, 肝升肺降, 肝升膽降 등이 升降出入運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陰은 下에 위치하며 上升하고 陽은 上에 위치하며 下降하는 陰陽升降과 關係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五臟간의 關係에 있어서는 心肺는 上에 있어 陽이 되고 肝腎은 下에 있어 陰이되므로 陽은 下降하고 陰은 上升하는 陰陽升降에 따라 心肺의 氣는 下降하고 肝腎의 氣는 上升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綜合하면 《黃帝內經》에서는 升降概念이 醫學의 理論으로 體系를 갖추었으며 升降出入이 宇宙萬物의 運動에 있어서 基本形式이 됨을 提示하였고, 人體내의 清陽과 濁陰의 升降, 臟腑의 升降, 藥物의 升降, 升降의 病理와 治法

등 全般的인 升降에 대한 基本學說을 提示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左升’ ‘右降’이라는 精確한 言及은 없으나 類推해본다면 左는 陽氣가 上升하는 通路이며 右는 陰血이 下降하는 通路가 됨을 提示할 수 있다. 그리고, 時間과 空間적인 制約 즉, 時空이 다름에 따라 自然界의 升降運動도 다르므로, 人間이 주위 環境과의 適應過程에서 發生하는 疾病 또한 각기 다르게 됨을 알 수 있다.

內經以後의 歷代 醫家들의 學說은 모두 內經을 根據로 하여 臨床 經驗의 蓄積을 통하여 發展하였으므로 升降學說에 있어서도 內經의 本旨를 繼承하여 發展되었다고 思料된다.

升降失調를 招來하는 原因에 대하여 定理해보면 清濁의 位置가 逆轉된 清濁相干, 情志失調로 인한 氣血逆亂과 水火不交, 陰陽之氣의 多少의 差異에 의한 氣血의 逆上이나 下虛등 여러 原因으로 發生됨을 提示하고 있다.

升降失調로 인한 病證에 대하여 살펴보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氣在下則 生飧泄

濁氣在上則 生臌脹”이라 하였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 “大怒則 形氣絕而血宛於上 使人薄厥”이라고 言及한 이래 李東垣은 膽은 少陽春升의 氣로 膽氣가 不升하면 飧泄, 腸澀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吳鞠通은 腕腹脹, 大便不爽이 黃元御는 嘔噦, 痰飲, 驚悸, 眩暈, 吐衄, 嗽喘, 心痺, 噎膈, 反胃 등이, 李中梓는 瘀血과 痰飲이 李延은 痰飲이 升降失調로 인한 病變이라고 言及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升降失調로 인한 病證은 臟腑氣機의 升降失調로인한 諸病證을 包括하고 있으며 治療法으로는 藥物의 性

味를 명확히 판단해서 降者는 舉揚하고 升者는 抑降하여야 할 것이다.

古代醫家들이 다양한 比喻를 통해 설명한 自然界 升降運動은 近代 物理學의 概念과도 밀접한 關聯이 있음을 把握할 수 있다. 天氣의 下降과 地氣의 上升은 大氣運動의 作用-反作用 關係를 형성하는 重力과 揚力과의 關係로 類推해 볼 수 있다.

現代 生物學的 觀點과의 相觀관계에 대한 言及으로 尹吉榮은 同化와 異化過程에 關係된 機轉을 陰陽의 升降出入이라 認識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結論

升降理論을 명확히 밝혀 韓醫學의 升降의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綜合적으로 考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升降運動은 《黃帝內經》에서 밝힌 바대로 升降의 道路는 左升右降으로 生長收藏을 통한 生命活動의 根源이 되고, 人體內的 陰陽水火升降, 天地氣 및 四時陰陽升降까지도 包括하는 概念으로 볼 수 있다.
2. 臟腑의 升降은 肝의 疏泄, 心火의 下降, 脾의 升清, 胃의 降濁, 肺의 宣發과 肅降, 大腸의 傳導, 腎水의 上升, 膀胱의 排泄 등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臟腑 間의 升降은 肝升과 肺降, 脾升과 胃降, 心降腎升 등으로 나타났다.
3. 升降失調로 인한 病證은 內經에서 鬱, 飧泄, 臌脹 등이 言及된 이래, 臟腑氣機升降失調로 인한 모든 病證을 包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升降失調로 인한 治法은 內經의 “高者

抑之”, “下者 舉之”라고 하는 原則하에 藥物의 歸經과 氣味를 參照하여 升降失調를 調節하여야 할 것이다.

5. 時間의 經過에따른 升降運動은 天文의 變化에 따른 陽氣의 消長에 依據하여 四時로 區分하였고, 體內的 陽氣의 消長도 一定한 升降變化의 規則을 維持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6. 空間의 變化에 따른 升降運動은 上下, 左右, 表裏, 地勢 등의 空間的 與件이 人體를 둘러싼 環境을 規定하고 人間은 天地氣運의 升降에 適應하면서 體內 氣運도 따라서 運行됨을 알 수 있다.
7. 自然界의 升降運動과 人體 表裏 內外에서의 升降運動은 圓滑한 生理기전을 維持하기위한 不可分의 關係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體內 에너지의 運動을 表現한 것을 ‘表裏升降’ 이라고 하고 人體와 外部 環境과의 關係를 說明할 경우에는 ‘出入升降’이라고 하여 體內에서는 물론 人體와 外的 環境과의 交流를 總括하는 概念임을 알 수 있다.
8. 人體내 에너지 代謝運動은 人體내 上下表裏의 陰陽升降 運動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人體의 陰陽升降運動은 氣化作用으로 概念지을 수 있다. 人體內 升降과 氣化作用을 具體화하면 ‘廣義의 氣化’는 陰과 陽의 機轉을 모두 포함한 ‘氣化’, ‘血和’의 意味라고 한다면, ‘狹義의 氣化’는 陽機轉에서 일어나는 ‘陽化氣’ 즉, ‘血和’의 反對作用인 ‘氣化’의 概念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參考文獻.

1. 洪元植 編著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2. 王琦 外 編著：素問今釋，貴州市，貴州人民出版社，1981
3. 許慎：說文解字註，大成出版社，서울，1990
4. 寇華勝 編著：中醫升降學，江西城，江西科技出版社，1990
5. 李相殷 監修：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館，1966
6. 張珍玉 編著：病因病機學，서울，一中社，1985
7. 金完熙，崔達永：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1985
8. 文濬典 外：東醫病理學，서울，高文社，1990
9. 李正來 著：東洋醫藥原理，서울，온누리出版社，1988
10. 尹吉榮 著：東醫學의 方法論研究，서울，成輔社，1983
11. 周易：大田，學民文化社，1990
12. 論語：서울，明文堂，1988
13. 李東垣 外 五名 著：東垣十種醫書，서울，大星文化社，1983
14. 黃元御 撰：黃元御醫書十一種(下卷)，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15. 葉天士：臨証指南醫案，上海，人民衛生出版社，1983
16. 張介賓 著：類經，서울，大星文化社，1988
17. 周學海 撰：讀醫隨筆，江蘇城，江蘇科技出版社，1983
18. 辭海編纂委員會：辭海，上海，上海辭書出版社，1979
19. 金完熙：韓醫學原論，서울，成輔社，1990
20. 國際醫學學生會：東洋醫學叢書，서울，1990
21. 朱丹溪：格致餘論，서울，大成出版社，1983
22. 張仲景：傷寒論，台北旋風出版社，1974
23. 李中梓：醫宗必讀，台北，文光圖書公司，1976
24. 陸極：脾胃明理論，北京，中醫古籍出版社，1991
25. 陳士澤：辨證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
26. 張景岳：景岳全書，台北，旋風出版社，1980
27. 曹斗弦 編譯：詩經，서울，慧達出版社，1988
28. 石壽棠：醫原，江蘇城，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
29. 具本泓，李京燮：心系內科學，서울，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出版局，1981
30. 尚書(洪範篇)，서울，法人文化社，1993
31. 陳修園：陳修園醫書七十二種，臺北，文光圖書公司，1964
32. 謝觀：中國醫學大辭典，北京，中國醫學大辭典編輯局，1994